中 '진성호 뺑소니' 공식 확인

■골든로즈호 침몰 5일째

"사고 전후 구조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사에 한국 전문가 참여…가족 현장 방문 연기

중국 해사당국은 15일 세인트빈센트 선적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金盛)호가 충돌사고 발생 전후에 한국 화물선 골든로즈호와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해상산업노조와 시민단체인 활빈단은 16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중국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선박이 골든로즈호를 침몰시켜 선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사고선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중국정부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한국과 중국이 이번 침몰사고의 조사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중국 교통부 옌타이해사국의 뤄융훙 통항관리처 부처장은 이날 실종된 한국인 선원 가족들과 만나 "진성호 관리회사인 산둥루펑항운유한공사 관계자들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뤄 부 처장은 옌타이해사국이 사고 당일 오전 11시40분(중국시간)에야 관리회사루부터 첫 사고신고를 받았다는 지금까지의 중국 언론 보도내용을 확인한 후 이 같은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내용을 선원 가족들에게 전했다.

진성호가 사고를 전후해 아무런 예방조치나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바로 현장을 떠났으며 첫 신고도 무려 8시간40분이 지난 다음에 했다는 사실을 중국 해사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부국장은 "진성호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사관행에 따라 구조조치를 취하고 긴급조난구조신호(SOS)를 보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선박 모두 SOS를 보내지 않았다"면서 "중국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중국 언론은 해사당국이 골든로즈호 실종 선원들을 찾기 위해 15일에도 범위를 넓혀 융단식 수색.구조작업을 진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사고해역의 평균 수온이 섭씨 13.6도 밖에 되지 않아 실종선원들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골든로즈호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해역 방문을 17일로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현지 사고대책반 관계자는 "현재 사고해역에 강풍이 불어 기상조건이 좋지 않는데다 가족 중에 여성과 고령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가족들이 자체 회의를 열고 사고해역 방문을 내일(17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재미한인 "이산가족 상봉 북한 갑니다" 미주지역 한인들이 해외 거주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이산가족과 상봉하기 위해 16일 북한을 방문한다. 앞줄 왼쪽부터 박응태(66), 오태주(87), 석명희(73), 이석규(76), 이진호(84), 전충일(73)씨. 뒷줄 왼쪽에서 2번째가 신남호 평통 LA지역협의회장. /연합뉴스

北, 영변 핵시설 주변 대공포 집중 배치

위성사진 공개…美 공격 대비용인 듯

북한은 영변 핵시설 주변에 22문 이상의 대공포를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북한이 영변핵시설이라는 좁은 지역에 이처럼 많은 대공포를 배치한 것은 미국의 북한 핵시설 기습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군사전문지인 '글로벌시큐리티'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글로브'가 찍은 영변핵시설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영변핵시설 주변엔 대공포가 최소 22문 이상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대공포의 구체적인 위치를 표시한 전체 사진과 대공포 진지 1곳을 근접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실었다.

사진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시내 남단의 5MW 원자로와, 공사중인 50MW원자로, 재처리시설 등을 중심으로 대공포를 집중 배치하고 있는 반면에 영변시내 쪽은 거의 없어 대공포를 배치한 것이 영변핵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글로벌시큐리티측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공개한 사진은 지난 2002년 촬영한 사진"이라고 밝혔다.

군사전문가들은 2002년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일각에서 영변 핵시설 선제공격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점을 지적, 북한이 영변핵시설 주변의 대공경계망을 늦췄을 가능성은 적다며 최소한 2002년 수준을 계속 유지하거나 대공망을 더 강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北 신형미사일 이란서 원정발사실험 가능성

韓美 정보당국, 첩보 입수 추적중

한미 군(軍)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달 25일 인민군 창건일 군사퍼레이드에서 공개한 최대 사거리 4천km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이란에서 '원정 발사실험'했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여부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저지 차원에서 북한과 이란간 미사일.기술협력과 관련장비 교역을 우려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첩보가 '객관적 사실'로 입증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워싱턴의 정통한 군사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군사퍼레이드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은 과거 소련이 잠수함 발사용으로 개발했던 SSN-6를 개조한 것으로 사거리 2천500~4천km에 이르는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le)"이라고 말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1998년 8월 발사실험을 실시, 미국과 일본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거리 2천km 이상의 대포동 1호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길고, 작년 7월 처음 발사실험을 한 최대사거리 6천km 이상의 대포동 2호 미사일보다는 사거리가 짧은 것이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은 북한에선 한 번도 발사실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대신 북한이 이 미사일을 이란에서 발사실험을 가졌다는 첩보들이 입수돼 관련국 정보당국들이 이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헝가리 방송 "한국기업, 폴포트보다 더 하다" 물의

삼성전자 광고 취소 검토 등 항의

헝가리의 한 FM 라디오 방송이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을 캄보디아의 독재자 폴포트에 비유하며 싸잡아 비난, 물의를 빚고 있다.

헝가리의 FM 방송인 '슐라게르'(Slager)의 저널리스트 보츠코르 가보르는 지난 11일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는 '부메랑' 프로그램에 출연, 사회자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국 사람들과 기업들을 '혹독하다'고 비난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보츠코르는 대담을 나누는 코너에서 "한국 사람들은 혹독한 사람들이다. 헝가리의 한국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 사람(주재원)들도 나와 있다. 멀리서 통제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들은 폴포트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

더욱이 문제가 커진 것은 이 프로그램의 광고 스폰서 중에 삼성전자[005930] 헝가리 법인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삼성전자 측은 즉각 라디오 방송 테이프를 입수, 보츠코르의 발언들을 분석한 결과, 특정 기업의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기업 전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과 한국인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지난 14일 방송사에 강력히 항의했다.

방송사 측은 뒤늦게 발언 내용이 물의를 일으키자 삼성전자에 사과 편지를 보내고 필요한 경우 법인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부메랑 프로그램 측과 계약한 3건의 광고 가운데 2건을 일단 보류 조치한 뒤 향후 광고를 전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아듀! 시라크

15일 TV 고별 연설 갖고 40년 정치무대 퇴장

퇴임후 빈곤퇴치·환경·문화분야서 활동할 듯

자크 시라크(74) 프랑스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직을 니콜라 사르코지에게 넘기고 40여년 간 이어진 파란만장한 정치인생을 마감한다.

12년만에 엘리제궁을 떠나는 그는 15일 저녁 고별 TV 연설에서 항상 단합하고 국가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또 후임 대통령의 지도력에도 기대를 보냈다.

센강 좌안에 마련된 아파트로 이사하는 시라크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해 빈곤 퇴치, 환경보호, 지속 가능한 개발, 문화간 대화촉진 분야에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파리 시장과 총리, 대통령을 두루 거친 그의 정치 인생은 공과가 혼재하고 복잡다단한 것이어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정치적 견해를 바꿔가며 국면을 능란하게 헤쳐 나가는 대처 능력을 보였다. 이 때문에 '카멜레온 보나파르트', 변덕이 심한 '바람개비'란 별칭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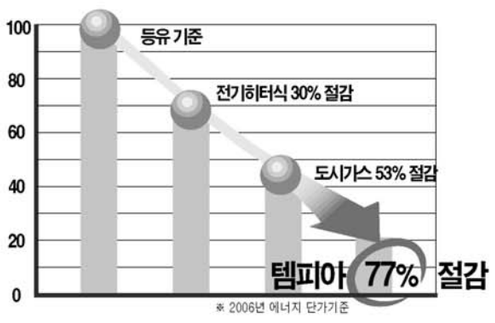
강력한 공화국을 주창하는 드골주의자인 그는 한편으론 징병제를 폐지했고, 세력을 키우는 극우파에 단호하게 맞서기도 했다. 1990년대엔 유고 내전을 종식하는데 중요 역할을 수행했다.

1995년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엔 남태평양에서의 핵실험 재개를 발표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국익을 앞세워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는 2006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때 한 프랑스인이 영어로 연설하자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로 영어 주도에 반발했다. 문화 다양성을 대의로 내세우지만 그의 '불어 사랑'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5년 엘리제궁에 입성한 그는 7년 임기를 마친 뒤 2002년 재선에 성공, 5년으로 바뀐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파리=연합뉴스

쓸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냉·난방기

1/3로 줄었다
미국특허, 6단계 히트펌프로 템피아 유지비는 1/3입니다
1/3기술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특허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냉+난방 에어컨 템피아가 만든 세계 최초 6단계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유지비 절감은 물론 시원한 냉방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지정
구입방법
▸ 업계 최초 템피아 특별 리스로 가볍게
보증금 10% 납부하시고 계약기간 만료후 제품의 소유권 이전 및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 무이자 할부 판매(12개월)
▸ 삼성, 대우, 기은캐피탈 12, 24, 36개월 할부 가능
3
한정수량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46만원~200만원까지 무상지원
한국전력에서 원격제어 냉·난방기를 무상 지원해 드립니다.
(일부품목한정)
10평형~160평형까지 항온가습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특별할인 판매 실시

공기과학 냉+난방에어컨
TEMPIA
템피아의 얼굴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062)955-4222,080-701-7117
MBC 에어컨을 거꾸로 가동시켜 실내를 난방하는 신기한 기술 공기중 잠열 사용으로 난방비 70% 절약,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난방기 MBC9시 뉴스데스크(2004.12.9)
KBS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기술 기존 냉·난방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보조히터 없이 한겨울에도 40도 이상의 더운 온도가 나오는 냉·난방기 KBS 1TV7시 뉴스광장(2001.12.26)
SBS 강원민방 최첨오염 감소와 에너지 절약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한 기업 수상은 시행착오 끝에 세계가 인정한 '히트펌프' 개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템피아 강원민방 전정봉의 기업포커스(2003.1.19)
MBC 유지비와 실내공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신기술 많은 냉·난방 관리비와 유해가스로 고민하던 쉼터의 문제 해결을 위해 템피아 냉·난방기 협찬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 '러브하우스'

국제외식산업(주)
SINCE 1985
맛과 멋을 새롭게…
인터넷주소 국제외식

야외 결혼식 가능 (뷔페)
관광버스음식 대절 (각종 안주류)
출장뷔페 예약상담 ☎.(062)262-2278